

일주문

천태종, 하안거 한달수행 프로그램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본산인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신묘년 하안거 한달수도'를 진행한다.

조계사 노후설계 아카데미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8월 11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마음다스리기'를 주제로 국민연금 배민정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를 연다.

은혜사 조사전 상량식 봉행
영천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은 8월 2일 경내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목련신달 청소년 여름캠프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8월 4~7일까지 고성 건봉사에서 목련신달 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동화사 팔공산 승시 개최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9월 1~5일 동화사 집단시설구에서 제2회 팔공산 승시를 개최한다.

사회복지 사진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청원 스님은 실버갤러리 고운사에서 7월 27일~8월 16일 '사회복지지원봉사 아름다운 사진전'을 개최한다.

동국대 입학사정관제 전공 바로알기 캠프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8월 18일까지 고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전공 바로알기 캠프'를 연다.

반갑다연우야 봉사자 모집
반갑다연우야 황재운 봉사단장은 10월 29일~11월 3일 라오스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732-7272

불자마라톤동호회 창선수행
정해선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 회장은 불자마라톤회 1080배 절 수행 및 창선수행을 9월 3~4일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에서 개최한다. (051)253-8687

2011 Young Buddhist Camp.
이인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8월 11~14일 고택 선운사에서 2011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수행환경 수호 기도 입재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진화 스님(사진)이 말 많고 탈 많은 봉은사 주지 자리에 임명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스님은 그동안 매일 종무원들과 108배를 하고, 사시에불 등에 동참하는 등 사중 안정에 전념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봉은사는 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의 규제에 정제되는 한편, 도량 앞 코엑스 컨벤션센터의 증축계획(4층→39층)으로 수행환경을 침해당할 우려에 처해 있다.



연하고 있지만 결국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봉은사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2000여 명이 참석한다. 많은 인원이 매주 봉은사를 찾는다는 진화 스님이 큰스님 등을 초청해 유익한 법문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했다. 진화 스님은 "봉은사에 대항의 수행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내부역량의 결집과 직결된다"면서도 "외부환경 변화로 수행환경이 침해받는 것을 막는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수

행환경을 지키고, 7만 여 신도의 수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님은 참선, 참회기도 등 여러방법을 고민했다. 진화 스님은 "많은 인원이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행하는 방법은 다르니 독경이었다"며 "9월 21일 입재를 시작으로 매월 한차례 3년 6개월 동안 42회에 걸쳐 천수경 108독 기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천수경 기도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산문을 걸어 잠글 것이다. 이를 통해 전년도와 봉은사가 관광지가 아닌 수행공간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화 스님은 "기도가 진행되는 42개월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불자라면 누구나 봉은사를 한번 이상은 찾도록 하겠다. 강남 포교거점사찰로서 도량을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화 스님은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과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광주 중심사 주지,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송광사 기획국장, 봉은사 부주지, 제14대 중앙총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사찰음식 육성, 달성이 나섭니다"

대구시 달성군청 김문오 군수



"달성에는 여러 고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착안해 사찰음식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청(군수 김문오·사진)이 전국 최초로 사찰음식 전문점 육성 강화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지역 특색과 사찰음식을 접목시키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찰음식 강좌가 마련됐지만 영업주 대상의 전문점 육성 강좌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성군에는 남지장사, 유가사, 운흥사 등 천년 고찰이 지리해 있다. 가장 면에 위치한 남지장사는 한 때 8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3000명의 승려가 수행할 정도로 사세가 컸다. 가장면에는 또 신라 흥덕왕 때 창건된 운흥사가 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지휘해 왜적을 격퇴했다고 전하는 곳이다. 유가면에도 전년도와 유가사가 자리하고 있다. 유가사는 한 때 3000명의 승려가 거주하고 1000 마지기의 전답을 보유할 정도로 큰 사찰이었다. 이런 지역 특색과 더불어 사찰음식 교육도 지역 내 사찰인 수도암 주

지 승원 스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다. 연방으로 유명한 승원 스님은 올해 4월 경내에 무료 찾집 '녹지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번 강좌는 7월 12일~9월 27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사찰음식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직 달성군에는 사찰음식 전문점이 없으나 달성군청은 이번 강좌를 통해 영업주들이 업종변경이나 메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달성군만의 특화된 사찰음식 전문식당 육성과 사찰음식 메뉴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기범 기자

2012년까지 전국에 9개소 설치·운영

구자선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장 1년 연임 포부 밝혀

"꿈과 희망을 나누고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단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처럼 아름다운 회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이하 경불련)는 8월 2일 서울 중앙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자선 회장(76·사진)의 회장 1년 연임을 밝혔다.

구 회장은 "6개월 회장 소임을 맡을 계획이었으나 1년 연임하게 됐다.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뜻있는 불자 경제인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싶다"며 경연다운 포부를 내비쳤다.

최근 경불련은 지승동 대명종합건설 회장(조계사 총신도회장)을 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차기 회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 받았다.

현재 구자선 회장은 (주)자연과 사

람 회장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로 "현재 CEO들의 모임 회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왔다.

1년 간 경불련은 전국 조직 활성화 및 지역회 창립에 힘써왔다. 이에 올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주지역회를 비롯해 대구·경북, 서울, 부산, 경남, 대전·충청, 전북, 강원, 광주·전남 등 전국 지역회 9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경불련은 5월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정식 신도단체로 인가 받아 창립 목적 사업을 통해 불교계 신학단체의 중추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 사업으로는 ▷자비나눔 봉사단 발족을 통해 자비정신 구현 ▷경제인 불자 양성 및 불교경제 원리의 연구 보급 사업 ▷템플스테이를 통한 해외 진목 도모 ▷회원사 지원 및 생활 공동체를 위한 사업 추진 ▷신도목적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활동 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자선 회장은 "300여 경제인이 모여 시작해서 점차 지금은 500여 회원이 모였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모임은 어떤 종교인들의 모임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회 창립을 통해 튼튼한 조직을 이끌 활동 공동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언 기자

행원문화상 권오민 교수·서수일 단장

제20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로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서수일 아비라테 앙상블 단장이 선정됐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7월 28일 역경상에 권오민 교수, 특별상에 서수일 단장을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원문화재단은 권오민 교수가 '아미달마순정리론'을 번역하는 등 초기 경전 연구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됐다

고 설명했으며 서수일 단장의 경우 불자합창단 아비라테 앙상블을 창단하는 등 포교활동과 불교음악 발전에 힘쓰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9월 22일 서울 역삼동 대려도에서 열리며 역경상 수상자에게 상금 5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 상금 3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졸업생 노지은씨 중국 정부 장학생 선발

금강대 졸업생 노지은(중국 푸단대 박사과정)씨는 중국 정부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8월2일 금강대는 밝혔다. 올해 푸단(復旦)대 박사과정 입학생 34명 중 중국 정부 우수 장학금 수혜자는 노지은 졸업생을 포함 총 2명이다. 천진영 기자

노지은씨는 2010년 중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이번 박사과정에서도 중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이에 노지은씨는 푸단대학교 박사과정 3년 동안 전액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 매월 연구비 및 생활비, 생활 정착금 및 교재 구입비 등으로 연간 7만 5000위안(한화 약12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현대불교 2011년 7월 27일자 제846호 19면과 2011년 8월 3일자 제847호 32면에 게재한 (사)일불법왕문도회 정식 사단법인설립 허가완료 광고란에 "재단법인 일불선교종과 함께 호국불교효예중, 세계불교법왕청, 세계일류평화불교연맹등 기타종단과 함께 저희 일불법왕문도회에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는 광고 문안이 있는데

본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불선교종에서는 (사)일불법왕문도회에 동참하기로 협의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중도 여러분들께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명칭을 사전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사)일불법왕문도회 이사장 이담화를 비롯하여 이사진들은 정식으로 사과문을

현대불교 및 불교신문에 공고할 것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중도들은 강력히 촉구 합니다.

불기2555(2011)년 8월 4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전 중도 일동